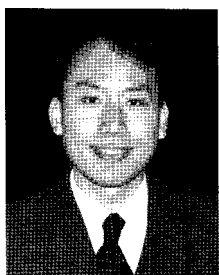


관광, 문화 · 사람 · 자연에 흠뻑 젖다



박근수 |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경영학과
교수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빠름을 모토로 한 패키지관광에서 느림을 모토로 하는 에코투어리즘 (Ecotourism)으로 관광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객들이 점점 더 많이 느림을 즐기는 관광을 찾는 반면 일상생활속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빠르고 급한 모습이다. 얼마 전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한국인의 하루'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 시간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며 산다고 생각하고 국민 6명중 1명 (미혼여성은 3명중 1명)이 아침식사를 거르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바쁜 생활속에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느림의 생활양식을 관광을 하면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에코투어리즘은 Ecology(생태)와 Tourism(관광)의 결합어이며 자연관광의 한 형태로서 멸종의 위협을 받는 동·식물을 보호하고 보전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유형이다. 필자는 에코투어리즘을 방문하는 지역의 문화, 사람, 그리고 자연을 배려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에코투어리즘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착한여행, 공정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착한여행이란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현지주민들의 식당이나 숙소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 그리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 나라의 인사말 배우기와 같은 행동수칙을 지키는 여행을 말한다. 얼핏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이러한 여행을 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행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나온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관광 전문가들은 여행의 정수는 바로 여행하는 지역의 '문화체험'이라고 생각한다.

느림이라는 화두를 안고 변화하는 관광의 패러다임에서 최근 인기리에 등장하고 있는 도보길여행은 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맛깔스러운 여행이다. 도보여행길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

(Camino de Santiago)의 전체코스인 800km를 몇 달에 걸쳐 걷기 위해서 전 세계 600만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매년 이 곳으로 오고 있다.

일본의 불교 순례여행길인 '시코쿠 순례여행길'에도 연간 15만명 이상의 도보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도보여행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걸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나 또 다른 도보여행객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성있는 경험을 여행객들에게 맞출 수 있게 해준다.

국내에서도 2007년 제주 올레길이 조성되면서 도보길여행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올레길 관광객이 25만명 정도로 늘어났다. 제주 올레길이 불과 3년만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올레길을 통한 도보길여행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상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밀감 철에는 밀감 밭마다 올레길에 밀감을 내놓고 올레꾼들이 무료로 맛보게 하는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여행객들에 대한 배려는 여행객들의 가슴에 감동을 가져다주었다. 올레꾼은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그 마을의 아름다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문화를 가슴에 담아가는 대신 지역민이 운영하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지역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점포에서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여행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관광도 '느림의 관광'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대

전광역시, 충북도, 보은군, 청원군, 그리고 옥천군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반길 조성사업'은 충청남도가 시도하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의 한 축이 될 것이다. 2010년 9월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이 발족되어서 향후 3년간 정부와 지자체 예산 84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대규모 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인 '대청호반길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의 호반길이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3개 광역시도와 4개 시군이 협력하는 '대청호반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왜 사람들이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일본의 '시코쿠 순례여행길', 그리고 제주의 '올레길'을 찾아가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보길여행은 여행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된다는 점이다. 이들의 만남에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제주 올레길에서 만난 지역주민이 밀감을 무료로 먹여 보라고 건네주는 모습에서 여행객들은 사람사는 맛을 느끼는 것이다. 여행객들은 지역특산품을 먹기도 하고 주문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며 스쳐가게 된다. 대청호반길을 조성할 때도 도보여행객들과 대청호반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도보길 조성철학이 요구된다.

'대청호반길 사업'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서 충청남도가 시도하고 있는 '느림의 관광'으로의 변신이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행복한 관광경험이 되고 서로가 상생하는 여행구조를 만들어나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